

<2017년 7월 23일 주일말씀>

그릇된 습관과 버릇은 고질병이니 고쳐라

본 문 전도서 12장 14절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

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

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오늘은 ‘**습관과 버릇**’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.

주제는 ‘**그릇된 습관과 버릇은 고질병이니 고쳐라.**’입니다.

◎ 지난 주 <7월 19일 수요말씀>과 연결해서 들으면,

더 잘 깨닫고 이해가 갈 것입니다.

<말씀 전초>

◆ 선생은 늘 새벽 1시에 기도하고 2시간 이상 잠언을 받습니다.

잠언을 받고 나면, 무릎과 허리가 너무 저리고 아픕니다.

그래서 지난 **3일 동안** 잠언을 받은 후에 잠시 누워서

저리고 아픈 무릎과 허리를 쉬게 해 줬습니다.

누워 있다가 편하니, 잠이 들었습니다.

그러다 <황금 시간>을 놓쳐 버렸습니다.

- ◆ 그랬더니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

“잠언 받고 누워 있는 게 습관이 됐다.

<세 번>이 결국 ‘습관’ 이 된다.

지금 안 고치면 못 고치고 그대로 된다. 고치자.” 하셨습니다.

그리고 <습관과 버릇>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

- ◆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.

<나쁜 습관과 버릇>은

- 자기에게 손해가 가게 하고,
-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,
- 높은 단계의 휴거에 지장이 있고,
- 자기의 보화를 잃게 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.

<말씀 시작>

◎ 먼저 ‘습관’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.

- ◆ <습관>은 ‘생각’에서 옵니다.

뇌에 그 생각이 입력되니,

그 시간이 되면 꼭 잊지 않고 그 생각대로 ‘행동’ 하게 됩니다.

그 행동을 몇 번만 하면 <습관>이 됩니다.

몇 번 할 때 못 고치면, 점점 고치기 힘들어집니다.

나중에는 <뇌>가 그쪽으로 굳어서 그 행위가 편합니다.

그것이 체질이 되어 <몸>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행해집니다.

- ◆ 식물이나 동물들도 ‘습관’ 을 들이면서 키우면, 그대로 됩니다.

강아지에게 밥을 줄 때
사료에다 닭고기를 섞어서 주는 습관을 들이면,
나중에는 사료만 주면 안 먹습니다.

<양달 식물>을 ‘응달 식물’ 이 되게 습관을 들이면,
응달 체질의 식물이 됩니다.

또 식물에 물을 적게 주고 퇴비를 안 주면서 키우면,
그런 식물이 됩니다.

그 대신 잘 안 큼니다.

사람도 그러합니다.

- ◆ 사람은 <생각>에서 ‘습관’ 이 오니,
<생각>에서 잊으면 ‘습관’ 도 지나가서 못 합니다.

<생각>에서 ‘습관’ 이 오기도 하고,
<생각>에서 ‘습관’ 을 버리기도 합니다.

<생각>이 ‘모든 것의 근원지’ 입니다.

고로 아예 <생각>으로 ‘나쁜 습관’ 이 못 오게 하고,
습관이 들었으면 바로 고쳐야 됩니다.

- ◆ 개인 · 가정 · 민족 · 세계 모두
<나쁜 습관과 버릇>이 들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고,
받을 축복을 못 받기도 합니다.

- ◆ 주식 투자도 습관이 되면, 손해를 봐도 자꾸 합니다.
〈뇌의 생각〉도 〈행동〉도 그쪽으로 굳어서 습관이 됐기 때문입니다.
- ◆ 돈도 못 벌면서 흥청거리고 쓰는 것도 〈습관〉이 들어서 그렇습니다.
고치지 않으면, 그 습관으로 인해 ‘빈곤함’ 이 찾아옵니다.
- ◆ 말투, 행동, 성격, 게으름, 서운함, 식생활, 생활 등 습관이 들면
하나님이 고치라고 해도 못 고칩니다.

〈습관〉이 정말 무섭습니다.

고로 시작될 때, 몇 번 할 때 고쳐야 됩니다.

나무가 크면, 손으로는 못 뽑습니다. 어릴 때 뽑아야 됩니다.
〈습관〉도 그러합니다.

- ◆ 섭리사에서도 〈안 좋은 습관과 버릇이 든 자들〉을 보면,
10년, 20년 됐어도 못 고치고 지금도 여전합니다.
- ◆ 〈안 좋은 습관〉으로 인해
얼마나 손해가 가는지, 얼마나 원하는 것이 안 되는지,
얼마나 축복을 못 받는지, 얼마나 하는 일이 안 되는지,
얼마나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지,
얼마나 높은 차원의 휴거를 이루는 데 지장이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.
〈자기 육의 습관〉을 ‘자기 혼과 영’ 도 가지고 있으니,
안 고치면 막대한 손해가 갑니다.
- ◆ 유초등부나 중고등부들
어릴 때 〈나쁜 습관〉을 못 고치면, 커도 계속합니다.

어릴 때 술, 담배, 이성, 동성, 음란물, 썩는 문화,
나쁜 성격이 습관 들면 커서는 2~5배나 더 합니다.

그때는 더 못 고치니, 너무 괴롭습니다.

한 살이라도 어릴 때, 어서 고쳐야 됩니다!

- ◆ 어른들 중에서도 10~20년 동안 말씀을 들었어도 못 고친 자들은 지금도 그 습관대로 합니다.

이제는 정말 고쳐야 됩니다!

- ◆ <휴거 700선>은 고칠 것을 꼭 고쳐야 됩니다!

<휴거 700선>은

-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로 인정하는 단계이고,
- 온전한 단계로서 주가 안심하는 단계이고,
- 변질되지 않는 단계입니다.

어서 <나쁜 습관과 버릇>을 고쳐야,
<자기 영>이 ‘700선’ 을 넘어갑니다.

- ◆ 교역자들, 지도자들, 목사들, 강도사들, 전도사들,
장로들, 권사들, 집사들, 사명을 맡은 자들 모두
꼭 <나쁜 습관과 버릇>을 고쳐야 됩니다.

하나님과 성령과 주가 선포하니,
꼭 고치고 ‘휴거 차원, 삶의 차원’ 을 높이기 바랍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<나쁜 습관>은 ‘죽은 시체’와 같습니다.

고로 싹 고쳐서 장사 지내야 됩니다.

- ◆ <나쁜 습관>은 ‘옥의 티’와 같습니다.

고로 ‘좋은 생활의 흠’이 되어, ‘자기에게 해’를 줍니다.

- ◆ <나쁜 습관>은 ‘얼굴의 흠’과 같습니다.

흠을 떼 내듯 고쳐야 됩니다. 그래야 빛납니다.

- ◆ <나쁜 습관>은 ‘불구의 몸’과 같습니다.

불구의 몸을 고치면,

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다니니 얼마나 편합니까?

이와 같이 나쁜 습관을 고치면,

그만큼 인생길이 편하고 좋습니다.

- ◆ <나쁜 습관>은 ‘길을 갈 때 발에 걸리는 돌’과 같습니다.

돌을 빼내야 가는 길이 편하듯,

나쁜 습관을 고쳐야 인생길이 평화롭고 형통합니다.

- ◆ 지나치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등 <나쁜 습관>을 잘못 들이면,

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걱정하고 근심하면서

너무 큰 고통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.

- ◆ <나쁜 습관>을 안 고치면,

‘금 같은 자’가 ‘쇠 같은 인생길’로 가게 됩니다.

- ◆ 허리도 구부리고 다니다가 그 자세가 습관이 되면,
몸이 그대로 굳어 버려서 허리를 구부려야 편합니다.
그러나 그 자세를 안 고치면,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.

- ◆ <마음과 생각과 행동>도 그러합니다.

나쁜 습관이 들면,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굳어 버려서
그렇게 생각하고 행해야 편합니다.

그러다 <나쁜 습관>으로 인해 ‘문제’가 생기고,
그로 인해 자기가 ‘해’를 받게 됩니다.

- ◆ <나쁜 것>도 **자기가 좋아하다 보면** ‘생활’이 되어서
그것이 ‘나쁜 습관’인지 모릅니다.

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, **자꾸 하다 보니** ‘습관’이 든 것입니다.

흰 걸레도 쓰다 보면, 더러워져서 어두운 색이 됩니다.
그런데 나중에는 본래부터 그런 색인 줄 압니다.

사람도 그러합니다.

말도, 성격도, 행동도, 생활도, 신앙도 나쁘게 길들이면
결국 ‘죄짓는 습관과 행위’가 됩니다.

후에는 ‘자기’가 ‘그 대가’를 다 받게 됩니다.

- ◆ <자기>가 ‘나쁜 습관’을 들이고,
<자기>가 ‘자기’를 힘들게 합니다.

고로 <고치는 것>도 ‘자기’가 해야 됩니다.

나쁜 습관을 고치면, 그로도 편합니다.

<생명의 말씀>으로 습관을 들이고,
성령과 함께 말씀을 절대 행하여 고치기입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<게으른 습관이 든 사람>은 10년이 가도 못 고칩니다.
게으르니, 아직 젊은데도 80세 노인같이 생활합니다.

<게으름>이 ‘습관’ 이 되고 ‘체질’ 이 되어서,
가만히 있는 것을 편하게 생각합니다.

<젊음>을 ‘게으름’ 으로 썩히니, 참 어리석고 안타깝습니다.

- ◆ 지난 주 수요말씀에 이야기했지요?

<게으른 자의 집>에 가 보니
그 논밭에 가뭄이 들어서 짹짹 갈라져 있었고,
거기서 키우는 가축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비쩍 말라 있었습니다.

그는 해가 질 때까지 들판을 서성이다가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고,
그 집에 들어가 보니 ‘눈에 띄는 물건 하나’ 없었습니다.

결국 그 <영혼>이 ‘게으른 육’ 과 같이 되어 마치 ‘가뭄’ 이 들어서
메말라서 짹짹 갈라진 논바닥같이 됩니다.

게으르니,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.
고로 하나님도 주도 축복해 줄 수가 없습니다.

게을러서 가만히 있는 자에게 축복해 주면,
사탄이 와서 자기도 축복해 달라고 힐문할까 함입니다.

- ◆ <습관>은 ‘타고난 삶’ 이 돼 버립니다.

<게으른 습관>도 안 고치면, 결국 ‘타고난 삶’ 이 돼 버립니다.

<좋은 집과 정원>이라도

청소도 안 하고, 수리도 안 하고, 정원의 잡초도 안 뽑으면
결국 <헛 집과 지저분한 정원>이 됩니다.

<인생>도 그러하고 <신앙>도 그러합니다.

- ◆ <습관>은 이미 ‘길’ 을 닦고 ‘그 길로 다니는 자’ 와 같습니다.

생각과 몸이 ‘그 습관’ 에 맞춰져서 사니,
생각도 행동도 ‘그 습관의 길’ 로 가면서 계속 발달이 됩니다.

고로 신앙도 생활도 습관이 잘못 들면,
습관의 사막, 나쁜 습관의 족속’ 을 벗어나지 못하고
계속 거기서 발달이 되어 삽니다.

고쳐야 벗어납니다!

- ◆ 섭리사 안에서도 ‘체질과 습관이 맞는 자들’ 끼리 뭉칩니다.

나쁜 습관을 못 고치고 좋아하며 계속하다가
결국 ‘초가집’ 을 면치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.

- ◆ 잘되고 형통하는 자들을 보세요!

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하나 되어 사는 자들입니다.

이런 자들끼리 ‘체질과 습관’ 이 맞으니,
서로 뭉치고 행하며 은혜를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킵니다.

이들은 ‘앞으로의 삶’ 도 보장되어 있습니다.

그 ‘영의 삶’ 도 보장되어 있습니다.

- ◆ 저마다 <나쁜 습관>은 계획적으로 고쳐야 됩니다.

한 달만 제대로 하면 고쳐집니다.

습관이 잘못 들면, ‘자기 보화’ 를 발견하지 못합니다.

습관이 잘못 들면, ‘손해’ 를 보게 됩니다.

습관이 잘못 들면, ‘사망’ 으로 가게 됩니다.

습관이 잘못 들면, ‘영원한 운명’ 까지 뒤바뀝니다.

고로 꼭 고치기입니다.

- ◆ 모두 <겉만 금칠한 인생> 되지 말고,

나쁜 습관을 고치고 <정금 같은 인생>이 되어 살기 바랍니다!

<잠시 쉬었다가>

◎ 조금 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. 잘~~ 들어야 됩니다.

- ◆ <지역>도 ‘위치’ 가 그리도 중합니다.

<위치>에 따라서 ‘값’ 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

<사람>도 ‘위치’ 가 그리도 중합니다.

<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함께 이 역사에서 사는 위치>가 중하고,

<자기 사명의 위치>가 중합니다.

뻔가지 말고 꼭 지켜야 됩니다!

◆ <자기 위치>를 떠나면, ‘사명’을 뺏깁니다.

천사장 루시엘은

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‘자기 위치’를 뺏기고
<사명>을 뺏겼습니다.

아담과 하와는 타락함으로 ‘자기 위치’를 뺏기고
<믿음의 조상의 자리>를 뺏겼습니다.

그로 인해 ‘저주의 자식’이 되었습니다.

이와 같이 각종으로 ‘자기 책임’을 못 하다가
그 귀한 ‘위치’를 뺏기게 됩니다.

◆ <섭리사를 떠난 자>는 ‘위치를 뺏긴 자’입니다.

<섭리사 안에 있는 자들 중>에서도 ‘정상의 제 위치’를 뺏기고
B급, C급 위치에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.

<자기 위치가 중한 것>을 모르고,
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
<자기 위치>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

◆ 어떤 사람은 <자기 사명>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,
잠시 정비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갖게 했습니다.

그런데 ‘자기 생활’을 해결하려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다가
결국 ‘그 족속이 있는 곳에 거하는 자’가 되었습니다.

<하나님과 주가 맡긴 사명을 할 자>가 ‘자기 위치’를 떠나서
경제를 펴거나 다른 일을 하는데 잘되겠습니까?

이는 <비탈진 땅>을 ‘논으로 삼고 농사짓는 격’ 이고,
<개>를 가지고 ‘밭을 가는 격’ 입니다.

그러니 안 됩니다.

- ◆ <생각>은 ‘주를 중심’ 한다 하는데,
<생활>은 ‘자기를 중심’ 하며
<자기 할 일>도 안 하고 <주가 맡긴 일>도 안 하고
먹고 즐기기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.

그러면서 ‘다른 일’ 을 한다고 합니다.

결국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안 해 주니,
경제의 가뭄이 들게 됩니다.

그러다 일생 동안 ‘메마른 사막’ 을 걷게 됩니다.

- ◆ <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>은 가는 곳마다 축복이었고,
<그렇지 못한 에서>는 가는 곳마다 가뭄과 사망의 연속이었습니다.

- ◆ <하나님과 주의 심정을 벗어난 자>들은
가는 곳마다 ‘메마른 땅’ 이 됩니다.

손바닥을 뒤집어서 ‘손등’ 으로 글씨를 쓰면
글씨 한 자라도 제대로 안 써집니다.

바로 뒤집어서 ‘손바닥과 손가락’ 을 가지고 해야
글씨 한 자라도 제대로 써집니다.

이와 같이 <마음과 행실>이 주 앞에 온전히 돌아와야
하나님도 줄 것을 주십니다.

◆ 잘 들어요.

40대가 넘으면,

<좋은 새 장소>를 찾아서 ‘새 집’을 짓고 살기 어렵습니다.

<좋은 자리>가 따로 있습니다.

<자연성전같이 좋은 자리>는 수십 가지가 다 좋아야 되고,
자기가 존재할 때까지 그 영향을 받고 삽니다.

샘물도 좋은 자리가 아니면 ‘오염된 샘’입니다.

사람도 그러합니다.

인생을 살 때 ‘위치’가 참 중합니다.

<자기중심의 길>은 ‘좋은 삶의 자리’가 아닙니다.

<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>가 ‘좋은 자리’입니다.

◆ <신앙>도 ‘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원(原) 물줄기’가 아니면,
가다가 ‘신앙의 물줄기’가 마릅니다.

<강>도 원(原) 물줄기에서 흘러오지 않으면,
가다가 말라서 **밭**이 되고, **길**이 되고, **하나의 토지**가 됩니다.

신앙이 ‘하나님의 원줄기’에서 흘러내리지 않고

<자기>를 ‘머리(頭)’로 삼고 ‘신(神)’으로 삼고 살면,

결국 ‘고무신’이 되어 끌고 다니게 됩니다.

◆ <삼위와 주>를 ‘신(神)’으로 삼지 않고,

<다른 것>이나 <다른 사람>을 ‘신(神)’으로 삼는 자는

결국 <신발>을 ‘신(神)’으로 삼고 살게 됩니다.

- ◆ 성경에 나오는 <와스디 왕비>는 ‘자기를 중심’ 했습니다.
그래서 왕비를 <에스더>로 바꿔서 다시 세웠습니다.

섭리사에서 ‘자기를 중심하는 자’ 는 다 바꾸고 다시 세웁니다.

그러나 본인은 ‘자기 위치’ 가 바뀌었는지 모릅니다.

그저 분위기상 생각만 할 뿐입니다.

확실히 모르니, 계속 ‘자기 습관, 자기중심’ 으로 삽니다.

이들은 마치

하늘을 쳐다보면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를 기다리는 자와 같습니다.

그러다 후에 알게 돼도 이미 늦어서 ‘할 시간’ 이 없고,

그때는 ‘다른 사람이 하는구나.’ 깨닫게 됩니다.

- ◆ 사람은 모르는 대로

<무지의 습관, 그릇된 습관>이 들어서 살아갑니다.

<그릇된 습관>이 들면

그 습관대로 뇌가 아예 굳어 버리고,

그 습관대로 중독되어 계속 그릇되게 행하며 삽니다.

고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 결국 ‘자기 위치’ 까지 뺏깁니다.

고로 <어린 자>는 어느새 ‘치타’ 가 되어

지상을 뛰고 날면서 역사를 이루는데,

자기는 ‘고양이’ 가 되어서

아직도 “내가 뽀힌 자다! 내가 이쪽의 대표다!” 하면서

야옹야옹~~ 하며 삽니다. 안타깝습니다.

- ◆ <2000년 만에 다시 시작한 황금의 역사, 섭리역사>입니다.

그런데 자기중심으로 행하며 게으르게 산 자들은
그 체질과 습관과 행위대로 됐습니다.

<이 좋은 황금기, 그 젊은 나이>에

대충 살고, 보통으로 살고, 자기중심으로 산 것입니다.

그러니 40~50세가 돼도 ‘특별한 것’이 없습니다.

- ◆ <남은 황금기에 한 번 밖에 없는 인생>을 제대로 살려면,
마음과 행실을 다시 온전히 하고서 가야 됩니다.

<마음과 행실의 습관>이 잘못 들고 <길>이 잘못 들었으니,
다시 <길>을 내야 됩니다.

<자기중심의 길>을 다 버리고,

자기가 ‘새 길’을 내서 ‘주의 길’로 와야 됩니다! 믿습니까?

<말씀 마무리>

◎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.

- ◆ 이날 성령께서 ‘습관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,
<잠언 100개>를 주셔서 기록했습니다.

이 잠언들을 설교로 써서, 지금까지 말씀해 왔습니다.

- ◆ 100개의 잠언을 받고,
하나님께 <습관에 대해 빠진 잠언 몇 개>만 더 말씀해 달라고 하니,
하나님은 “아직도 더 많이 있다.” 하셨습니다.

뭐냐고 하니, 다음 잠언을 또 주셨습니다. **6개**입니다.
이 잠언을 전해 주고,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.

◆ <육신의 나쁜 습관과 버릇>은

<영>에게 옮겨 가서 ‘영’이 ‘영계’에서 그대로 행한다.

고로 어떤 영들은 ‘나쁜 습관’이 들어서 고집이 세고 강하다.

◆ 어떤 사람을 그렇게 전도하려 해도
고집이 세서 안 믿고 가지 않느냐.

그로 인해 ‘육과 영의 축복’을 놓치고,
경제도 명예도 운명이 돌아가 버린다.

◆ <그릇된 습관과 버릇>을 구분하고,
발의 가라지나 잡초같이 뽑아내라.

그러지 않으면 <수고의 열매>를 많이 거두지 못하고,
<황금벌판의 주인>이 되지 못한다.

◆ <늦게 하는 습관>을 고쳐라.

◆ <미리 하는 습관>을 들어라.

◆ <삼위와의 사랑에 불타는 습관>을 들어라.

◎ 말씀 마쳤습니다.